



# 일파만파

KT새노조 소식지 2015.2.12

www.humankt.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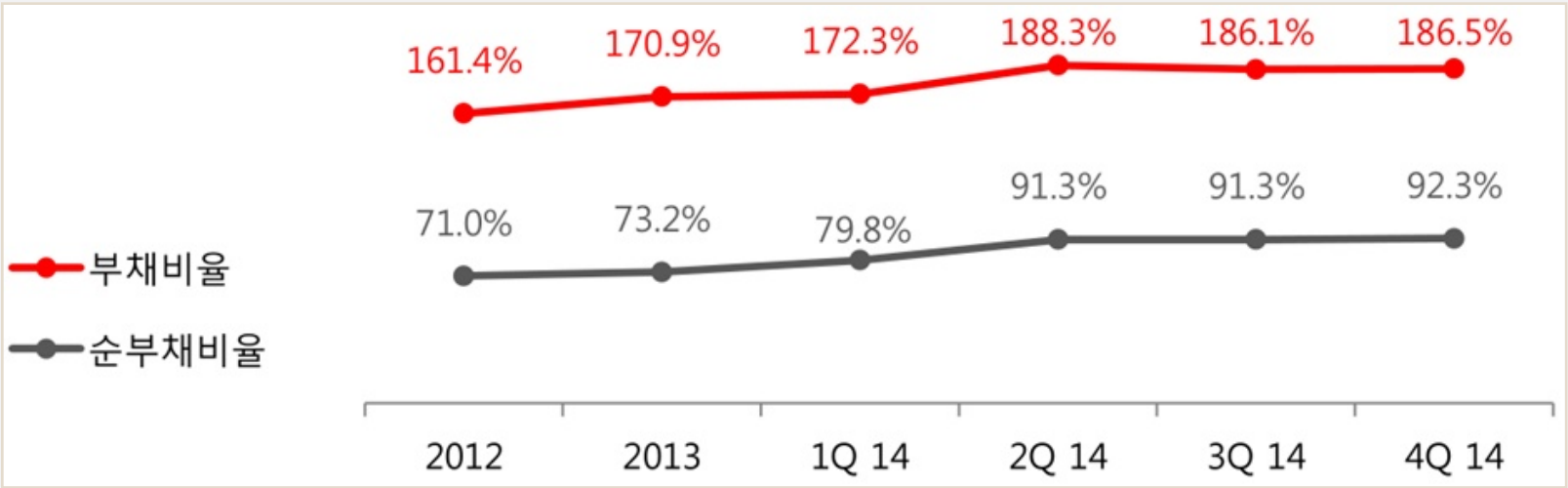
VOL. 22



## 황창규 회장 1년, 늘어난 게 아무 것도 없다!

황창규 회장 1년이 지났다. 1년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자산, 매출, 순익, 고용 노동자 수, 계열사 수 등 모든 게 줄었다. 한마디로 지난 1년 KT는 종합적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셈이다. 자산은 1조 원 이상 줄었고, 늘어난 것은 차입금뿐이어서 부채비율이 전년 대비 15.6%p 증가했다.

[ KT 2014년 4분기 실적 자료 ]



심각한 것은 돈 벌이 자체가 줄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영업이익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되었다. KT가 발표한 2014년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계열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은 전년 대비 1.6% 줄었고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되어 2,918억 원 손실을 기록했다. 대량 명퇴에 따른 일회성 비용증가 때문이라고 경영진은 해명했지만 이석채 비리 경영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2013년에도 영업이익은 8,394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영업이익이 1조 원 이상 감소한 충격적 결과이다. 당기 순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 9,655억 원의 손실(2013년 당기 순손실 602억 원)을 기록하면서 민영화 이후 처음으로 배당도 못할 형편에 처했다.

2014년 KT 주요 영업 관련 지표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4년 실적	23조 4,215억 원	23조 7,134억 원	-2,918억 원	-9,655억 원
2013년 실적	23조 8,106억 원	22조9,713억 원	8,394억 원	-602억 원
전년 대비	1.6% 감소	3.2% 증가	적자전환	2년 연속 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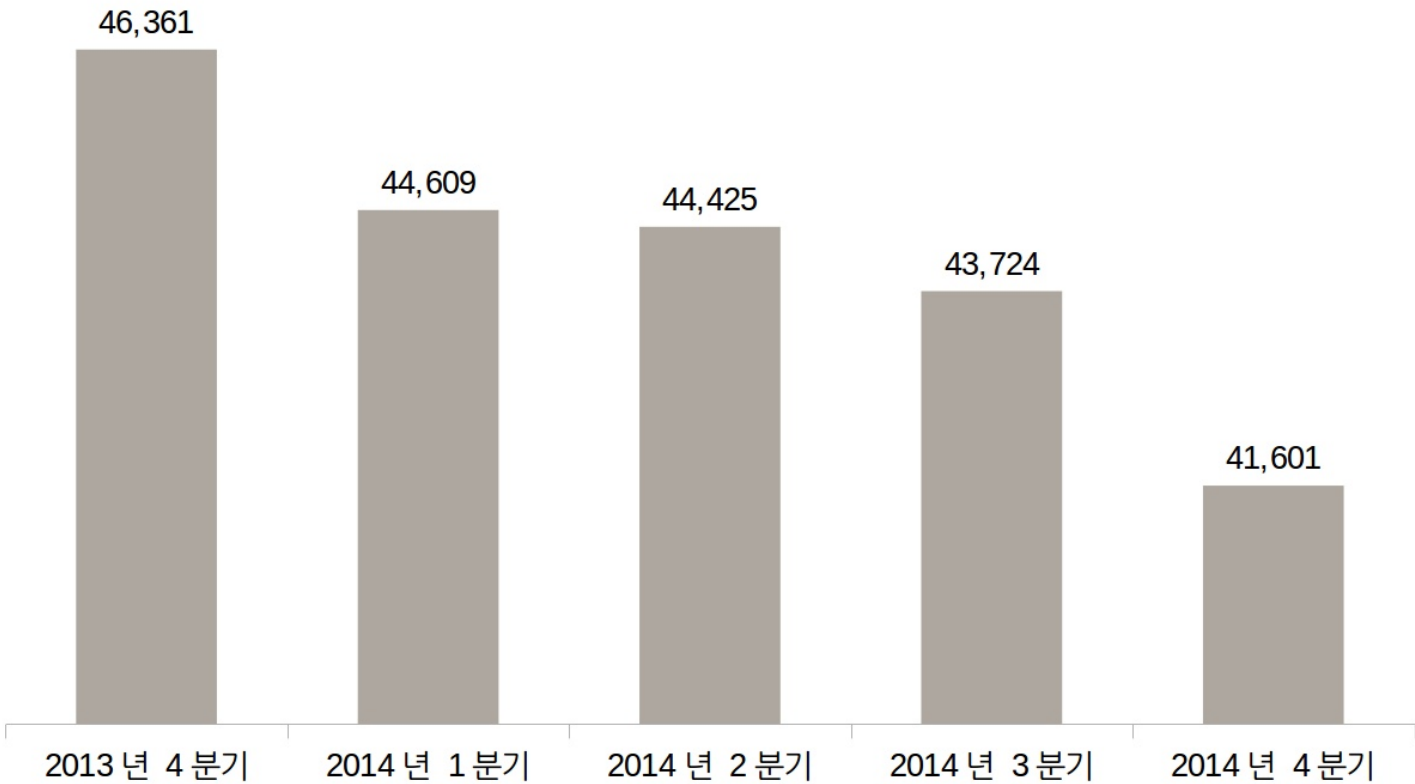
통신 경쟁력 강화한다고 했지만 통신 실적 계속 줄어

그런데 계열사 실적을 빼고 KT만을 별도 분석하면 실적 악화는 더욱 암울하다. 매출 하락세가 계속 되고 있다. 2013년 4분기 4조 6천 억 원을 기록했던 분기 매출은 2014년 내내 줄어 2014년 4분기에는 4조 1천 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이런 매출 감소가 지난 1년 황창규 회장 자신이 "통신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강조한 가운데 빚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지금의 KT 경영진이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을 쫓아내는 것 이외에 어떤 돌파구도 마련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KT 단독 지난 1년 영업수익 흐름

분기	2013년 4분기	2014년 1분기	2014년 2분기	2014년 3분기	2014년 4분기
영업 수익	4조6,361억 원	4조4,609억 원	4조4,425억 원	4조3,724억 원	4조1,601억 원

단위: 억 원



황의 법칙은커녕 최소한의 비전도 전략도 보이지 않아

이러한 결과를 놓고 당연히 황창규 회장의 전략 부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황 회장 취임 이후 "1등 DNA"를 강조했지만 달라진 것은



KBN 시청을 위해 출근 시간이 당겨진 것 외에 무엇이 있냐는 냉소적 반응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경영의 비전과 전략의 부재는 곧바로 현장에서의 끊이지 않는 구조조정 설의 근본 이유가 되고 있다.

이미 현장에서는 4월 1일 자로 CS 업무(CM팀, CS팀 등)를 분사할 것이라는 조직개편설이 급속히 퍼지고 있으며, 실제로 영업 일선의 직원들은 거듭되는 조직개편에 대해 “도대체 CEO로서의 실력 발휘는 언제 하려고 취임 이후 지금까지 1년 내내 조직만 바꾸고 있냐” 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은가!



**황창규 회장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한 위기 계속될 것**

"이석채는 전화국 건물 팔아 실적 올리더니, 이제 황창규 회장은 계열사 팔아 실적 올리지 않겠느냐", "CEO가 지난 1년 줄곧 통신의 본원적 경쟁력을 강조하는데도 통신 분야 매출이 줄었다면 그 경영진이 선택할 것은 구조조정 밖에 더 있겠느냐", "매출이 늘려면 일선 영업현장을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뛰어야 하는데 구조조정 설이 난무하는 지금의 현장에서 과연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겠냐", "최소한 현장의 분위기를 파악하려면 황회장이 KT새노조와 대화라도 해야 한다" 등등 현장 노동자들의 진지한 문제제기를 황회장이 계속 외면하는 한, 위기의 KT를 구할 황의 법칙은 결코 없을 것이다.

.....

## 직장 내 괴롭힘은 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



KT새노조는 두 번에 걸쳐 <일파만파>를 통해 우리 사회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하며 본격적인 사회의제화가 필요함을 제기했다. 특히 KT가 지금의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된 기업문화를 개선하지 않고는 1등 기업은커녕 존립 자체의 위기에 처할 것임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그 연장에서 <일파만파>는 이번 호를 시작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이 KT뿐만이 아니라 한국사회를 넘어 전 세계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먼저 이번 호에서는 한국 사회 못지 않게 심각한 직장 내 자살 등을 겪고 있는 일본 내의 직장 내 괴롭힘을 소개하고 이를 제재하기 위한 일본 노동성의 대응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들의 직장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익숙한 단어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비판적 의식이 존재하는 동시에, 직장 생활하려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일로 치부되기도 한다. 심지어 재수 없는 직장 상사를 만나서 생긴 불운 정도로 이해하면서 이 문제를 개인 간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왜곡된 노사관계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최근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직장 내 권력을 바탕으로 한 노동자를 인격적으로 짓밟은 것으로도 부족해, 이 사건은 폐를 위해 양심에 반하는 거짓증언을 노동자에게 강요하는 등의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던가!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다.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제재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것이 노사관계의 균형을 극단적으로 무너뜨려 사회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된 때문이다.



KT구조조정의 역사는 곧 직장 내 괴롭힘의 역사

특히 KT의 구조조정의 역사는 곧 직장 내 괴롭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고 KT는 곧 직장 내 괴롭힘의 대명사로 낙인 찍혀 있는 게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길게는 KT의 '상품판매전담팀'에서부터 CP 퇴출프로그램 그리고 최근의 CFT(업무지원단) 발령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명예퇴직 뒤에는 명예 퇴거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조직 혹은 프로그램이 가동되었던 게 KT의 실상 아니던가! 이런 경영행태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KT가 구조조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전략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용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의료단체들은 KT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자살과 돌연사 역시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 노동후생성 직장 내 괴롭힘 대대적으로 조사 해

지난 2015년 1월17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일본의 직장내 괴롭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다무라 아키히코 큐슈 사회의학연구소 소장이 일본 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대응에 대한 사례 발표가 있었다. 일본 역시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실적 요구에 의한 노동자들의 과로사 등이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의제화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파와하라'(영어로 힘, 권력을 의미하는 'power'와 희롱을 의미하는 'harassment'의 합성어)라고 명명하고 있고, 후생노동성(우리 나라로 치면 노동부)이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노동성에 접수된 상담 건 중 직장 내 괴롭힘이 급증하고 있고 동시에 우울증 등 정신과 질환으로 인한 산재 인정 건수 중 20%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으로 조사되면서 정부가 나서게 되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하는 법 제도 만들어져**

특히 일본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피해가 소득 수준이 낮은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그런 만큼 피해도 심각해서 자존감 상실 - 자살 등 극단인 피해도 계속 보고 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일본 사회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노-사-정부가 인식하여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물론 이렇게 정부가 나서는 것은 일본 뿐만 아니어서 프랑스, 캐나다, 스웨덴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널리 알려진 대로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텔레콤(현 Orange) 회장을 프랑스 검찰이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입건하기도 하였다. 최근 한국의 노동부도 다소 형식적일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기초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기에서도 KT가 주된 조사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35명 자살 책임 등으로 입건된 전 프랑스텔레콤 CEO  
Didier Lombard



**실적경쟁과 직장 내 괴롭힘이 동의어인 KT기업문화**

한편 일본 노동후생성은 이러한 실태 조사에 기초해서 곳곳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실질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고 한다.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우리 KT에서도 건강한 기업문화를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먼저 노동후생성은 성과주의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개선방안으로 지적했다. 실적을 내세워 실적 부진자를 괴롭히거나 팀실적의 저해자라는 이유로 공격하는 행위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하고 이를 추방하라는 것이다. 실적 경쟁이 인센티브에 의한 것이어야지 직장 내 괴롭힘을 수단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런 기준을 KT에 적용한다면 대부분의 팀의 운영 방식이 직장 내 괴롭힘을 동반하는 위법적인 것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지 않겠는가!

**장시간 근로 지시=직장 내 괴롭힘**

또한 일본 노동후생성은 노동자에 대한 장시간 노동, 과밀노동을 직장 내 괴롭힘의 개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황창규 회장 이후 KT에서는 사내방송 시청을 이유로 오히려 조기출근을 강요하고 있고 퇴근 시간도 계속 늦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장시간 노동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하는 일본 노동후생성의 입장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단순히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했느냐 아니냐의 경제적 보상 문제가 아니라 장시간 근로를 지시하는 것 자체를 일종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하고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빈발 기업 블랙기업으로 사회적 감시

특히 일본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빈발하는 기업들에 대해 '블랙 기업'이라는 명칭으로 사회적 제재가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KT의 경우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노동인권 탄압 기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고 이러한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평판이 영업실적 악화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에서도 이러한 제도화가 이루어진다면 반인권 기업의 대명사로 찍힌 KT의 경우 기업 존립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이 KT내부에 뿌리깊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을 고민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직장 생활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범죄이고, 이를 방치하거나 혹은 악용하는 기업은 블랙기업으로 사회적으로 제재 받아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그리고 이는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이제라도 KT경영진은 이러한 흐름을 적극 수용해서 인권 존중의 기업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호미로 막을 일 방치했다가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더 이상은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세금폭탄으로 둔갑한 연말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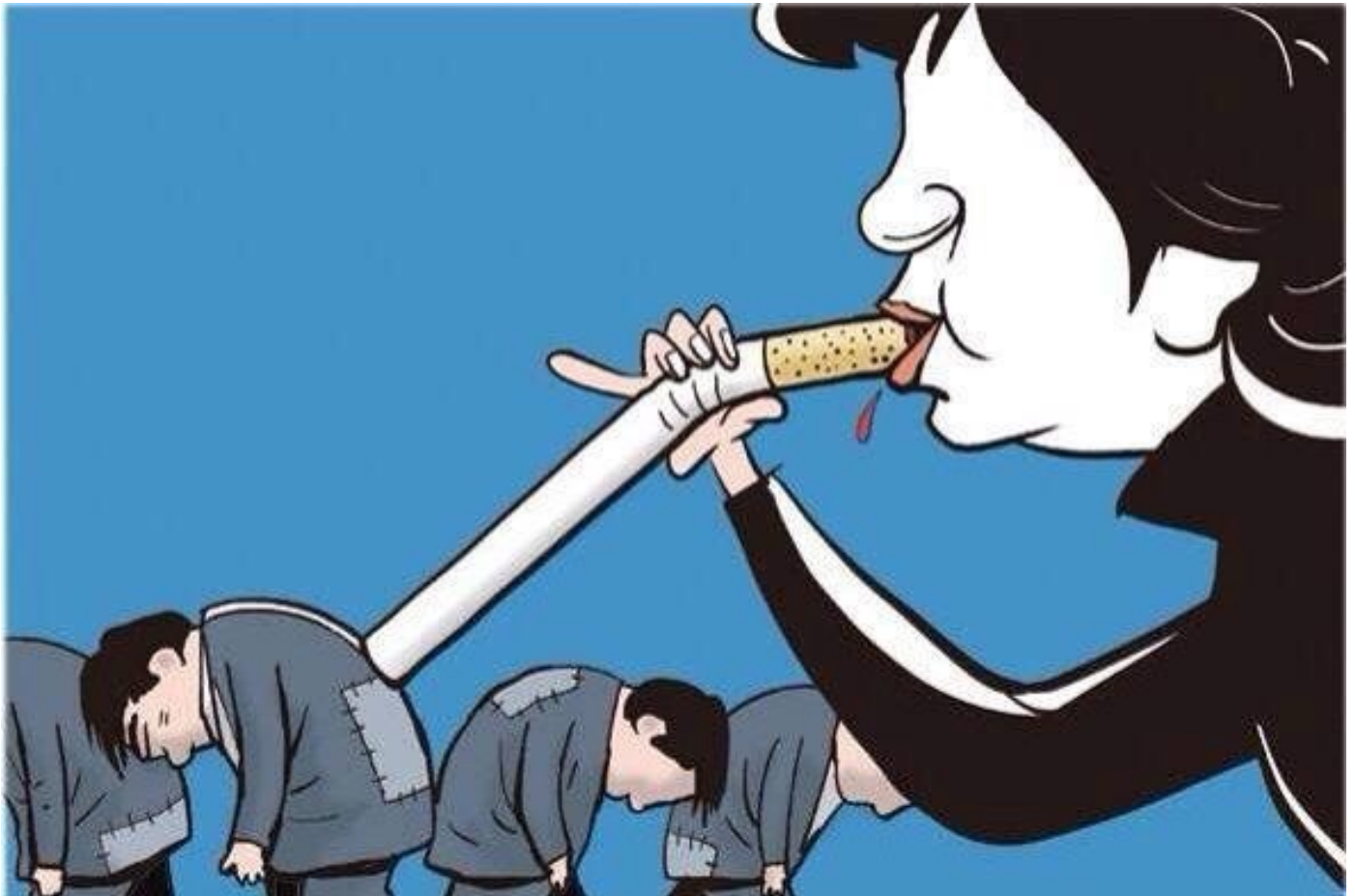
박근혜 정부의 근로소득세 세제개편에 따라 매년 13월의 보너스라고 여겨지던 연말정산이 올해는 세금폭탄으로 둔갑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진행된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한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2월에 돌려받는 세금금액이 대폭 줄었거나 오히려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는 연말정산의 방법이 바뀔과 동시에 나타난 현상인데 이전까지 소득공제방식을 올해부터 세액공제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정부가 1조 원 가까이 근로소득세를 더 걷은 결과이다. 물론 세액공제 방식이 고소득자에 대하여 세금을 늘리는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세금 공제 방식의 변경이 모든 소득계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꼼수였던 것이다.





## 증세하지 않겠다며 집권한 박근혜 정부의 공약은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작년 국세 세입예산을 보면 소득세가 4.5조 원 증가한 반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거의 비슷했다. 즉, 직장인들에게는 9%나 세금을 더 걷은 반면 기업들한테서는 0.1%만 더 걷었다는 것이다. 막대한 기업유보금(20대 그룹 유보금 589조 원)을 쌓아놓고 있는 기업에겐 세금 면죄부를 주고 더욱 막대한 부채(가계부채 1,021조 원)에 시달리고 있는 가계소득자에게는 엄청난 세금폭탄을 안겨준 꼴이다. 게다가 올해 담뭂값 인상 이전인 작년도 그 전보다 부가가치세를 4.2조 원, 7.4% 더 걷었다고 한다. 또한 부자들의 상속세 공제한도를 대폭 늘려 세금을 면제해 주기도 했다.



##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져온 부자 감세정책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2009~2013년 기간에 총 급여 4,000만원 이하 노동자들의 1인당 근로소득세가 약 13만 원, 6,000만원 이하는 9만 원 늘어났다. 반면, 8,000만 원 이하는 2만 원, 1억 원 이하는 38만 원, 2억 원 이하는 188만 원, 3억 원 이하는 185만 원 가량 줄어들었다. 부자 감세가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의 결과로 빚어진 분명한 현실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수치이다. 또한 법인세율도 3%나 인하해 주었으며 그 혜택은 75%가

대기업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고소득층에게는 과도한 세금혜택으로, 대기업들에게는 수 백조 원에 이르는 기업유보금으로 누적되는 결과만을 낳았다. 이러한 사태의 연장선상에서 세수부족이라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증세 없다' 라는 사기성 공약으로 집권한 박근혜 정부가 노골적으로 서민들을 향해 서민증세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은 부자감세, 박근혜는 서민증세**

세금폭탄으로 둔갑한 연말정산의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가 만들어낸 필연적 산물이다. 이명박 정부의 사자방 등으로 거덜난 국가재정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부자감세 규모도 기재부 추정 86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저질러 놓은 심각한 국가재정 문제가 시한폭탄처럼 타들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정작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를 해야 됴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꼼수로 근로소득세를 늘리고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을 축소하고,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복지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하는 등 서민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

**박근혜의 경제대책은 골프 활성화**

여론에 밀려 속 들어가기는 했지만 행정자치부장관이라는 자가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하겠다고 하면서 주민세는 모든 주민이 내는 회비의 성격이므로 주민세 인상안은 서민증세라고 할 수 없다는 황당한 발언까지 내뱉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사고방식의 진면목을 보는 듯하다. 게다가 박근혜대통령의 주문으로 골프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골프활성화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골프 관련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을 인하해서 골프원정 등 해외수요를 국내로 끌어오면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란 발상을 하는 정부에게 담뱃값 인상으로 속이 뒤집혀있는 국민들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